



# 韓國人の 四像體質 分布

- 본인 경험의 예를 바탕으로 -

桂山 宋 熙 俊



## I. 四像體質의 分布 例

四像體質을 창시한 東武 李濟馬 先生은 함경도 함흥에서 出仕를 마치고 의학에 몰두하여 特出한 學文의 한 분야를 開拓하셨습니다.

당시 溫疫이<sup>1)</sup> 流行하여, 同一한 증상에 同一한 약을 투여 하였는데 完治 되는자가 있는가 하면 惡化되어 失敗를 接하는 경우가 있어 궁극에 此 學文을 啓發하게 된 유래라 하겠습니다. 임상과 집필도중에 作故하시어 다방면의 치료경험을 남기시지는 못하였으나 此 學文의 大綱은 제시하였다고 보며 後學들은 不斷히 연구 精進 해야 할 소명을 부여 받았다고 봅니다.

東武 先生께서 함흥의 조그만 고을에서, 그곳 사람들에 대해 경험한 평균치를 말씀하신 것으로 사려 됩니다만<sup>2)</sup> 我 朝鮮人の 60%~70%는 太陰人으로, 20%~30%는 少陰人, 少陽人으로 말씀하신바 太陽人은 극히 희소하여 치료 약재 또한 10여 가지에 불과할 정도만 열거 하셨습니다.

近來에 와서 사상체질의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여 발표하는 내용들을 접해보면 東武 先生의 발표 수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30여년의 경험 소감을 발표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sup>3)</sup>

- 
- 1) 전염병
  - 2) 본인 소견
  - 3) 본인 소견

지금과 같이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100여 년 전 그것도 함흥지방 작은 고을에서 임상하신 결과를 예로 든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남북이 단절되어 자유 왕래가 없기 때문에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지방 사람들을 접촉할 경우는 극히 소수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월남하여 정착하신 분들을 상대해보면 太陰人이 적지 않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본인의 추론으로는 휴전선 북쪽 황해도까지 포함하여 수치를 결정한다해도 전인구의 70%~80%를 少陰人으로 나머지 20%~30%는 少陽人, 太陰人으로 규정해보며 太陽人은 수치에不入할 정도입니다. 본인의 지난 경험에 한두 사람에게 불과하였으며 계속하여 투약해 보지 못해서 확신도 주저합니다.

## II. 體質은 90% 이상 母系를 닮는다.

체질 의약에 전념하다 보니까 한방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 즉, 체질은 모계를 닮는다는 것을 發見하게 되었습니다.(단, 한국인의 예에서 임) 물론 國際的 체질도 연구대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는 임상에서 母系가 少陰人이면 그 자녀들도 少陰人의 약재를 응용하면 당장 알게 됩니다. 거의 부작용이 없이 수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母系의 체질을 알면 자녀의 체질을 알 수 있고 자녀의 체질을 알면 母系의 체질을 알 수 있으니 치료자와 치료 받는자의 便利한 점은 형언키 어렵습니다.

그러나 父系의 體質을 닮는 것은 10% 이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성격이나 모양새나 체격 등이 相似해도 말입니다. 유전이나 질병증상들은 父系를 닮는 경우가 있으나 體質만은 90% 이상 모계를 닮습니다.

그렇다면 응용면에서 少陰人이면 다같이 적용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또 분류가 됩니다. 각 체질에 속한 재료라도 그 체질의 十型 또는 一型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방에선 陰中之陰, 陰中之陽 등으로 표현합니다.

<例>

少陰人	陰中之陰	一型
	陰中之陽	十型
少陽人	陽中之陽	十型
	陽中之陰	一型
太陽人	陰中之陰	一型
	陰中之陽	十型

체질에 해당된 약재를 응용함에도 陽陰의 편중에 따라 선택된다는 예입니다. 그러므로 八像으로 비약되기 쉬운 결론은 본인으로서는 識見이 부족합니다. 연구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東武 先生은 太陽人 女子는 生産을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子女의 체질은 母系를 닮는다는 設과 相充되는 것입니다. 母系 太陽人 女子가 太陽人 子女를 生産한다는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0%에 가까운 체질을 두고서 고뇌하며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 Ⅲ. 體質食에 대해서

해방후 건국이래로 식생활도 많은 변천을 해왔으며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본인이 생각건대 30여 년 전 소아과 병원의 일반 환자 중에서 설사환자가 허다하였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이 아니고 도회지에서 말입니다.

母乳대신 牛乳를 많이 이용했기에 지금에 와서도 우유의존도는 더하면 더했지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유음용을 거절하자는 내용이 아니며 그렇다고 우유음용을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마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산양을 들여와서 농가에 보급하여 산양유를 판매하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유는 太陰人의 식품이며 산양유는 少陰人의 식품이기에 우유는 少陰人에게는 적절한 식품이 못되는 것으로, 體質食에서는 除外되기 쉬운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설사 증상은 영아 출생 후 100여일, 3개월 내외 좀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 후 처음부터 우유를 거부하고 설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왜 출생 후 100여일 내외는 그런대로 흡수하는가. 本人의 생각으로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특별한 因子가 비록 몸에 맞는 음식은 아니나 체내 흡수를 돕고 3개월이 지나면 이 因子가 수명을 다하고 消失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생후 100여일 내외가 경과하면 신통하게도 우유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즉 少陰人 영유아이기 때문에 太陰人食인 우유에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少陰食인 양유는 거부 반응 없이 잘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유제조회사에서조차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봅니다. 유당분 해효소를 첨가하였는지 유지성분을 축소시켰는지 잘 적응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체질에도 말입니다. 때문에 당신은 태양인이니까 머루, 다래, 모과를 먹어라. 당신은 소음인이니까 닭, 개, 양 등을 먹어라. 태음인이니까 메밀, 우유, 소고기, 울무를 먹어라 하는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단, 身體上 균형을 잃었을 때에는 약도 음식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질에 적응되는 약과 음식은 陰陽 불균형이나 氣血 허약시 회복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엔 체질식이 아니더라도 골고루 즐겁게 맛있게 드십시오. 또한 그렇게 체질식을 먹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산 한약방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2동 343-27)